#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제, 수출통제에 이어 관세가
강력한 통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녹아있습니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여
첨단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공급망 안정성은 산업정책의 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해 놓은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용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비축과 함께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 대상국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요소시장 상황별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나리오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요소 외의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핵심광물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원팀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